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진행된 다양한 경제발전론(Economic Development)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론의 변화에 따라 KOICA사업의 개발협력전략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전환을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적 시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이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이후,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Post-Washington consensus)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과 그에 따른 개발협력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을 경제발전론의 변화에 따른 시기별 특징적인 전략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의 시기별 개발원조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사업과 그에 따른 주요 공여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발전전략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기별 경제발전론의 변천과정과 세계은행의 시기별 전략을 바탕으로 KOICA의 개발협력전략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연구과제 세 가지 △개발재원연구(study on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 요인 분석(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raints on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NIS)연구(study o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in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productivity)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KOICA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제발전론의 변화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전략의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협력의 큰 프레임의 변화보다는 각 시기별로

강조된 부문이 달라졌을 뿐,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KOICA는 지금의 개발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발협력전략의 확장수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다가올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